

## 산업안전기사 시험 과목의 적절성 검토

임종국\*, 김수섭\*\*, 최완규\*\*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전공,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안전공학과  
e-mail:jkrhim@ut.ac.kr

###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Occupational Safety Engineer Certificate Subjects

Jong-Kuk Rhim\*, Su-Sub Kim\*\*, Wan-kyu Choi\*\*

\*Dept. of Safe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이다. 산업안전기사 제도는 1984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에 아주 높은 재해율을 경감시키고자 6개의 대학에 산업안전공학 과를 개설하고 산업안전 전문가를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기사 의무고용을 하기 시작하여 재해율을 경감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재해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의 고도화 혹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해 40여년이 경과된 산업안전기사의 교과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의 산업안전기사 필기과목의 구성은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론과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그리고 기계, 전기, 화공, 건설 4개 교과목의 위험방지 및 안전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각 공학별로 위험방지기술이 관리되던 것을 폐지하고 산업안전공학이라는 학문을 태동시키기 위한 불가피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근 40년이 경과되어 이러한 벽을 허물고 재해 감소라는 큰 그릇에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기아크용접으로 인해 대형 화재가 최근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산업안전 기사 출제기준에는 전기아크용접항목이 전기위험방지기술과목의 감전사고항목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계, 전기, 화공, 건설의 벽을 허물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